

특별기고



김종배 5·18 당시 시민학생투쟁위 총위 원장·전 국회의원

어떤 뉘우침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다.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과 사실 인정 없이 그냥 죽은 것이다. 화장해서 뿌려 달라는 유언을 했다니 제 잘못은 알고 있는 듯도 싶다. 그렇다고 흔적이 지워질 수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 그는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노태우·정호용·장세동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소탕 작전으로 익힌 잔인함으로 광주를 유린했다. 그는 주일 미국군 부사령관 위격과 월남전에서 친분을 쌓기도 했는데, 1979년 위원이 한국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다. 당시 클라이스틴 미 대사와도 소통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광주를 짓밟았던 것이다.

전두환은 생전에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광주 청문회 당시 신군부 세력들은 5·11 대책반을 만들어 청문회에 대비했었다. 5·18 당

전두환 죽음에 부쳐

시에 그들이 기록했던 전투상보나 계엄일지를 왜곡 조작했고, 전두환의 이름 석 자가 들어가는 기록은 모두 삭제했다. 더욱이 5월 21일 급남로 집단 발표를 시민들이 먼저 무장했기 때문이었다고 기록을 위조했다. 자기들의 집단 학살이 정당방위이며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전두환 본인은 광주 학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측근인 공수특전사 작전처장인 장세동을 5월 17일 광주 현장에 파견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정호용을 믿을 수 없어서 감시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혀졌다. 5월 18일, 1군단 보안대장인 호남 출신 홍성을 대령을 직접 파견, 편의대를 운용케 함으로써 시위 현장을 공작했다. 독침 사건을 연출하여 마치 북한과 연결된 불순분자들이 광주 항쟁을 일으킨 것처럼 발표했다. 홍성을 대령은 군대 내에서 대공 공작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다.

5월 21일 최경조 보안사령부 수사국장을 광주 현장에 파견하여 광주 항쟁을 폭동으로 몰아가고, 김대중을 광주 항쟁의 배후로 엮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 광주 항쟁이 격화되어 보고에 혼선이 일어나자 최예설 보안사령부 기획처장을 광주에 급히 파견하여 전교사 사령관실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전두환에게 보고하고 총괄 지휘케 하였다.

그때 광주 현지에 주재한 부대들은 유혈 진압을 반대했다. 윤홍정 전교사 사령관이 유혈 진압에 반대하자

곧바로 5월 21일 소준열로 교체했다. 황영시 계엄 부사령관이 탱크로 광주를 밀어 버리라고 지시했지만 이구호 포병학교 교장은 이를 반대하고 항명했다. 정중 31사단장도 유혈 진압을 반대했다. 전남경찰청장인 안병하 역시 무력 진압에 반대하고 경찰을 철수시켰다.

전두환은 광주 항쟁 기간 중 한 번도 광주에 내려간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5월 21일 집단 발표 전에 광주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올라간 사실이 밝혀졌는데, 전두환이 떠나자마자 오후 1시에 발표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그 당시 광주 주재 505보안대 수사과장이었던 서의남은 5월 21일 오전에 광주 전교사 연병장에 전두환의 헬기가 도착하여 군 관계자들을 만나고 갔다고 증언했다. 광주 학살은 국군보안사가 기획했고 공수특전사가 실행한 사건이다.

전두환은 비겁한 사람이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실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난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정치는 잘했다고? 그는 집권 내내 강압 통치를 일삼았다. 총칼로 정권을 잡아서 통치 자금을 만들고 갔다고 증언했다. 광주 학살은 국군보안사가 기획했고 공수특전사가 실행한 사건이다.

아직도 광주는 그 당시 정확히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알지 못한다. 암매장 장소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5·18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두환은 갖어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반듯한 역사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식물이 사는 땅마저 사랑하게 되는 일

처음 연재 제안 메일을 읽자마자 나는 이 연재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처럼 주저없이 결단을 내리는 경우는 무척 드문 일이었다. 메일을 읽는 동안 우리나라 남부 지역 곳곳에 자생하는 수많은 특산 식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이 땅의 소중한 식물 다양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물론 내가 전라도에 연고자 있거나 이 지역에 대해 특별히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남부 지방에서 살아 본 일조차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내장산에 얼마나 귀한 상사화속 식물이 자생하는지, 거금도의 노각나무 군락이 얼마나 특별한지, 완도 호랑가시나무의 자생지 훼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곳곳의 특별하며 고유한 식생을 줄곧 관찰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지인이기에 오히려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지 않을까?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줄곧 수도권에서 살아왔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금도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경기 동북부에 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인 국립수목원 역시 집에서 꽤 가까웠다.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식물세밀화가(식물학 일러스트레이터)를 채용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내가 저 먼 지역에서 살았다면 쉬이 수목원에 들어가 식물세밀화를 그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늘 생각한다.

우리 사무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학위를 마친 후 실무에 임한 연구자들이 있었다. 충북 청주, 대전, 경북 안동, 강원도 화천, 전남 순천, 부산 그리고 제주도

가 고향인 동료들이었다. 지방에는 일할 수 있는 식물 연구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동료들은 광릉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수도권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평일에도 퇴근 시간을 넘겨고 일을 했다. 주말 출근도 비밀비재했다.

언젠가 옆자리 동료에게 왜 주말에도 나오는지 물었다. 그는 혼자 살기 때문에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일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 제우도가 고향인 동료는 제주도에 식물 연구기관이 생기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전라도 순천이 고향인 동료는 고향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남부 지방 연구기관에서 채용 공고가 나기를 기다렸다. 혹시 공고가 나가라야 하면 매년 원서를 내곤 했다.

너무 많은 것이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다. 식물 연구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 지역들에 식물 연구기관이 없을 뿐 연구 대상인 식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식물은 다양하게 분포한다.

한반도에는 4800여 종의 관속식물이 자생한다. 이중 남한에는 3300여 종이 분포하며 전라 지역을 포함하는 서남부 지역에만 1300여 종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 320여 종 가운데 55종 역시 전라 지역에 분포한다. 특히 전남의 흑산도, 흥도, 가거도, 거문도, 완도, 조도, 진도 등과 전북의 내장산, 덕유산, 변산, 지리산 등은 학술적·자연적 가치가 무척 높다.

전국의 식물 연구자들이 광릉의 국립수목원으로 모

인 것은 9년 전 일이다. 그 후 강원도 양구에 국립 DMZ자생수목원, 경상북도 봉화에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세종시에 국립 세종수목원이 새로이 조성되었다.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가 고향인 연구자들의 선택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전북 김제시에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 새만금수목원이 한창 조성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지역 곳곳에 더 많은 식물원과 수목원이 조성되고, 지역에 특성화된 식물 전문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민속 식물의 중요도와도 비례한다.

학회나 모임에서 연구자들끼리 자기소개를 할 때면 이런 대화를 하곤 한다. "저는 충북 진천에서 왔어요." "오, 미선나무 자생지가 고향이네요. 참 귀한 곳을 고향으로 두셨군요." "명절이 끝나고 고향을 다녀온 동료에게는 '저기 구상나무 군락 잘 있어요?' 묻는다. 식물을 공부하면서 나는 식물 한 종 한 종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장소마저 사랑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이들 모두 식물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과 땅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 '고구려의 나무생각'이 연재를 마침에 따라 이소영 식물세밀화가가 '우리 지역, 우리 식물'로 독자들을 만납니다. 이 작가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원예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식물세밀화를 그렸습니다. 네이버 오디오클럽 '이소영의 식물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서로 '식물과 나', '식물 산책', '세밀화집, 허브' 등이 있습니다.

의료칼럼



박진우 보라안과병원 원장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이제 문화생활, 여행, 성형, 아르바이트 등 각자의 버킷 리스트를 실천할 것이다. 그중에는 안경의 답답함과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외모 변화까지 할 수 있는 시력 교정술을 염두에 두는 수험생이 많다. 시력 교정술을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시술법은 무엇일까.

라식 수술은 각막을 얇게 포를 뜨듯 뚜껍을 만들고 그 뚜껍을 들어서 엑시머레이저로 각막을 깎은 후 들어 놓았던 뚜껍을 그대로 덮는다. 따라서 각막 상피 손상이 없어 회복이 빠르다. 2~3일이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강한 외부 충격에 주의해야 한다.

라세 수술은 각막 가장 위쪽의 상피 부분을 벗겨낸 후 수술이 진행된다. 수술시 벗겨 냈던 각막 상피가 재생되기까지 3~4일간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완전한 시력 회복이 되기까지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라세는 라식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

수능 끝! 이제 안경을 벗을 시간

이 있다. 스마일 라식은 각막 주변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든 후 내시경으로 수술하듯 정교한 레이저로 만들어진 안경 모양의 각막 실질만을 제거한다. 라식 수술처럼 각막 뚜껍을 만들 필요가 없고, 라세처럼 각막 상피를 손상시키지도 않으므로 회복이 빠르면서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라식·라세의 장점이 합쳐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이다.

스마일 라식은 철저한 검안을 통해 굴절 이상에 맞는 두께와 모양의 각막 실질을 디자인하여 작은 절개창을 통해 각막 내부 실질층을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수술로, 기존 라식 수술보다 각막 절개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각막 신경의 손상도 줄일 수 있어 안구건조증, 빛 번짐, 원추각막증과 같은 기존 수술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작용의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수능 후 남은 눈술, 면접 등의 일정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회복의 시력 교정술을 선호한다면 스마일 라식을 추천한다.

ICL로 대표되는 안내 렌즈 삽입술은 쉽게 설명하면 눈 속에 본인에 맞는 특수렌즈를 넣어주는 수술 방법이다. ICL은 라식이나 라세와 달리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 아니므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레이저수술로 많은 양의 각막을 제거해야 하

는 위험이 따르는 고도 근시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 교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ICL은 각막의 손상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필요에 따라 렌즈를 제거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력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시교정용 ICL 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함께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통증이 덜하고 수술 다음날부터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어서 라식이나 라세이 어려운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안내 수술이므로 무균 수술실 환경을 갖추고 다른 안과적 문제를 모두 교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좋은 병원의 선택은 각각의 방법을 잘 설명해주고 10년 후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다. 수술 방법이 한 가지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병원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어느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를 해보고 여러 수술 방법과 개개인마다 눈의 특징이 있으므로 첨단 장비와 경험 많은 시력 교정팀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힘들고 고단한 터널을 지나온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본인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을 받고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무엇보다 아름답기를 바란다.

社說

'학살 주범' 갔지만 진실까지 묻힐 순 없다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 사망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완의 과제들이 역사 속에 묻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노태우 씨에 이어 유혈 진압의 핵심 책임자로서 암매장을 바라며 슬한 기회를 주었지만 전 씨는 끝내 단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며 구차한 변명과 죄악 회피로 일관해 왔다"며 분노했다.

전 씨가 사망하자 광주 지역 사회는 허탈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결자해지를 바라며 슬한 기회를 주었지만 전 씨는 끝내 단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통해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며 구차한 변명과 죄악 회피로 일관해 왔다"며 분노했다. 또한 "우리는 사법부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왔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광주는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좀 더 살아서 사죄할 날이 있기를 바랐다. 그가 좀 더 살아서 진실을 규명하여 반듯한 역사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시급하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로 전환된 지 20여 일이 지나면서 광주·전남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359명(지역 감염 346, 해외 유입 13)이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24일 현재 673명(지역 감염 660, 해외 유입 13)으로 늘었다. 전남 또한 18일 46명, 19일 66명, 23일 52명 등 지역 감염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운영 중인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모두 29개인데 이 중 27개가 이미 차 있어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중증환자 전담 병상'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만하다 악화되는 상황을 맞을 우려도 높아졌다.

이에 광주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중증 병상을 확충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 민간 상급 종합병

원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중수본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확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장 중증환자 병상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능한 병상 확보 외에 여유 있는 타 지역 분산 수용과 치료 후 호전된 환자 재택 치료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억지로 추가 병상을 확보하려다 기존 중증환자들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대규모 이동형 병상을 가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 또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고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중수본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확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장 중증환자 병상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능한 병상 확보 외에 여유 있는 타 지역 분산 수용과 치료 후 호전된 환자 재택 치료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억지로 추가 병상을 확보하려다 기존 중증환자들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코로나 중증환자를 위한 대규모 이동형 병상을 가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 또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실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다만 그 것을 어렵게 하는 여건이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없다.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4년간 도시·농촌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난립했는데도 왜 아파트 가격은 치솟기만 하는 것인가.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지난해 232만 명으로 전년대비 3만6000여 명 늘어났다. 무주택자는 919만 6539가구로 30만9617가구 증가했다. 부유층은 여전히 아

LH 등 공기업은 시대의 요구인 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을 외면했다. 오히려 수용권을 발동해 얻은 토지로 땅장사를 하며 배만 불렸다. 건설업체들은 공공택지에 민간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높이고, 웃돈까지 얹어 시장을 자극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투입 없이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토지 수용과 용도변경을 밥 먹듯 반복했다. 분양가가 높아지자 구도심의 재개발까지 더해지면서 도시는 온통 아파트 숲이 됐다. 하지만 서민들이 들어갈 곳은 눈

을 찢고 찾아봐도 없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을 짓게 했어야 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물가상승률 수준의 분양가 억제 정책을 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체와 투기 세력을 방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가라앉아야 하며, 아파트 가격은 투기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부동산 적폐' 세력이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